

AUTHOR 심창섭

TITLE 칼빈의 생명신학
-기독교강요 중심으로-

IN 신학지남사

다. 재앙의 시작과 재앙의 끝이 있다. 처음에 예고된 상급과 심판이, 끝날 때 약속대로 상급과 심판이 주어진다. 재앙의 인을 떼신 어린 양은 마지막 승리자로 모든 재앙을 마무리하신다. 고난 받은 교회는 중국에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박해한 악의 세력들은 결국 쫓겨나고 중국에는 불뭇에 들어가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칼빈의 생명신학*

-기독교강요 중심으로-

심 창 섭
(역사신학)

I. 서론

II. 본론

1. 생명에 대한 성서적 이해
2. 생명의 기원(*creatio vitae*) 대한 칼빈의 이해

3. 생명의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

4. 생명의 종말론적 이해

III. 결론

I. 서론

생명신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광의적인 해석으로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생명신학을 다루는 견해이다. 이는 주로 생명을 자연환경의 생명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적 질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생명에 대한 외경 사상으로 모든 자연세계의 생명체의 보존과 보호를 인간의 책임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총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제 4회 기독교학술원 발표회(2010.3.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로 강조하면서 생태신학이라는 용어를 창출했다.¹⁾

생명신학의 다른 한 부류는 자연 환경적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의 영원한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세계의 생명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영생에 대한 이해이다. 이 생명은 인간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이 있다고 하였다.²⁾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³⁾이라고 하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자가 없다”⁴⁾고 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⁵⁾라고 하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생명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을 가져온다. 인간은 타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생명을 되찾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을 가져오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회개라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 새 생명을 사는 삶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되찾은 자는 중생의 삶을 통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화의 과정을 확대하면 생명신학

의 수평적인 관점인 생태신학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한 영적생명의 회복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속에서의 생태신학의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생명신학의 양면성을 조명하는 신학적 작업이 한국 신학계의 신학적 주제로 다루어졌다. 생태적 생명과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한 학자는 송실대 김영한 교수를 들 수 있고⁶⁾ 그리고 서정배 교수도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견해를 잘 묘사하고 있다.⁷⁾ 여기에 반하여 생명신학을 영적생명에 초점을 둔 연구가 백석대학교의 개혁주의생명신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생명신학에 대한 논문들에서 나타난다. 특히 본 학술 포럼(forum)에서는 생명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영적생명을 강조하고 있다.⁸⁾ 본고에서는 칼빈은 어떻게 생명신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생명신학이란 용어가 칼빈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기독교 신앙자체가 생명의 종교이므로 칼빈의 개혁신학사상 속에서 생명신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조명해 볼 것이다. 칼빈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3가지로 분류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생명의 출처에 관한 이해, 둘째는 생명의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셋째는 생명의 종말론적 이해이다. 이 세 가지 분야를 다룬 후 칼빈의 관점에서 생명공학적 생명과 영적생명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생명신학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의 신학적 대작(Opus Magnum)인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연구될 것이다.

1) 이런 관점에서 생태신학을 접근한 대표적인 한국신학자들의 논문집으로는 송실대기독교사회연구소에 출간된 '생명의 신학과 윤리'라는 저서가 있다. cf. 이삼열 엮음, 생명과 신학과 윤리, (서울: 도서출판 열린문화, 1997)

2) 요일 5:11-12.

3) 요. 14:6.

4) 요. 14:6.

5) 요한 1:4.

6) cf. 김영한, 21세기 생명문화와 개혁신학 (서울: 예영컴퓨터커뮤니케이션, 2007), 240ff.

7) 이정배, "생명공학의 세계관과 생명신학," <http://cafe.daum.net/cgsbong/215s/839>.

8) 장중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in 제 2차 개혁주의 생명포럼, 백석대학교, 2009. 8.

II. 본 론

1. 생명에 대한 성서적 이해

생명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생명을 생리적인 유기체의 현상으로 본다. 이것은 자연과학분야의 생명에 대한 정의이다. 그래서 생명을 생화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물질과 에너지 대사를 통해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⁹⁾로 정의한다. 이러한 견해는 생명을 하나의 생화학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생물학적 관점이다. 둘째는 생명에 대한 종교적 정의이다. 이는 생명은 유기체의 생화학적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신적 영역에 두는 견해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이다. 성서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즉 기독교적인 생명은 자연적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성서는 모든 생물학적 생명 뿐 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영원한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영적 생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¹⁰⁾ 성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치부하는 자연주의적-일원적인 생명관¹¹⁾과 차별화 한다. 이것은 성서가 생리적인 물질적 생명과 영적 혹은 정신적 생명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²⁾ 성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임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성서적인 생명의 개념에서 생명신학을 출발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전제하고 있다.

2. 생명의 기원(cuasa vitae)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은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본체론적 논증(argumentum ontologicum)에서 말하고 있다.¹³⁾ 생명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실체(substantia)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세르베투스(servatus)의 주장에 반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입되었다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¹⁴⁾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며 하나님 홀로 생명의 본래적 원인(causa per se)으로 자신의 본래적 힘에 의해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태동시키시며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비밀스럽고 숨겨진 이 생명의 근원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그리스도로부터 열린 생명의 샘물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이 그 자신에게 숨겨져 있길 원치 아니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생명으로 존재하였고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신 것이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도 이 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생명의 원인과 원천이 하나님 자신 안에 없다면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홀로 본래적인 자신의 힘에 의해 존재할 뿐 아니라, 그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

13) John T. McNeill, edit., Ford Lewis Battles, trans.,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vol. 1, 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subject index, 1677-1678, 1.13.13.; 2.6.1.; 2.16.1.; 3.14.4.; 2.12.2.; 2.17.5. etc.,

14) *Oannis Calvini oper quae supersunt omnia, Vol. II*. Edit., by G. Baum, E. Cunitz, and E. Reuss, *Corpus Reformatorum*; Brunsvigae: Schwetschke et Filium, 1864. 1.13.13. pp. 100-101: Praeterea si extra Deum nulla est salus, nulla iustitia, nulla vita, Christus autem in se haec omnia continet, Deus certe ostenditur. Neque mihi quispiam obiciat, diffusam a Deo in ipsum vitam aut salutem accepisse, sed ipse salus esse dicitur ... Quid, quod a primo creationis exordio, teste evangelista(Ioanna. 1, 4), in ipso vita erat; et ipse vita iam tum existens, erat lux hominum? 이후로는 CO로 표기함.

9) 선순화, “생명의 위기와 기독교적 생명운동,” in 이삼열, *생명의 신학과 윤리*, 53.

10) 김은혜, *생명신학과 기독교 문화* (서울: 쿤란출판사, 2006), 22.

11) 기독교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8권* (서울: 기독교문서, 1983), 923.

12) 기독교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8권*. 923-928.

이 주께 있사오나”(시 36:9)라고 말한바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멀리 있는 하나님의 위엄은 비밀스럽고 숨겨진 샘물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열린 샘물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은 숨겨진 생명을 가지길 원치 아니하시며 그것이 자신 속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주입시켜서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신 것이다.¹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입했다는 사실을 반대하지만 요한복음 주석에서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입 되었고 말한다. 칼빈의 이러한 입장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한 정황을 살펴본다면 칼빈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칼빈이 생명이 주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단인 세베르투스주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즉 세베르투스가 존재론적으로 생명의 주입을 주장하는데 대해 칼빈이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주석에서 칼빈은 본체론적인 견지에서 생명의 주입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었고 그 생명을 예수에게 존재케 하셨기에 예수 자신도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요 공급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주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들이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신학은 혼돈될 뿐 만 아니라 텅 빈 것이고 미친 것이고 속임수라는 것이다.¹⁶⁾ 칼빈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죄 받고 사망에 이른 상태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

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그리고 예수가 바로 생명이 아니라면 죽음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동시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다.¹⁸⁾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은 생명의 본질(vitae substantiam)이라는 것이다.¹⁹⁾ 여기서 사용된 생명(요 1:4; 5:26; 6:35; 14:6 etc.)이란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로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표현일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²⁰⁾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생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존하는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생명이다.²¹⁾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헬라인들이 추정하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성격의 정신이 아니라 구체적 실체를 나타내는 생명인 것이다. 이는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²²⁾ 즉 칼빈은 생명의 기원(causa vitae)을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생명은 성부와 성자께 속한 것이며 영원한 실체인 것이다. 칼빈은 생명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사용된 메타포적인 용어인 “빛”이나 “길” 그리고 “진리”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 실재하는 삶의 원천(fontes vitae)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일 뿐 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며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칼빈은 무생물에게 생명이 주어졌든, 생물에게만 생명이 주어졌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생물의 상태는 그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것이다.

17) CO. 2.16.1, p. 367: ... ustitiam in ipso, liberationem, vitam et salutem quaeramus.

18) CO. 2.12.2, p. 341: *Ad haec apprime utile fuit hac etiam de causa verum esse Deum et hominem qui redemptor noster futurus esset. Eius erat mortem absorbere: quis hoc poterat nisi vita?*

19) CO. 2.17.5, p. 389.

20) 제자원,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vol. 109 (서울: 제자원, 2000), 58.

21) 서문강 역, F. F. Bruce, *요한복음 1* (서울: 도서출판 로고서, 2009), 78.

22) 제자원,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vol. 109, 58.

15)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on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4), 131.

16)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p. 77.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속적으로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에 번성하는 무엇이든지 의심할 여지없이 즉시 부패하고 소멸될 것이다.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하니라(행 17:28)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들린 것을 요한은 그 말씀(그리스도)의 축복에 의해 성취됨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그리스도)에 의해 그렇게 하신다.²³⁾

지금까지 연구한 칼빈의 생명의 원천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육화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또한 예수 안에 있다. 이는 예수도 생명의 원천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육화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이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타살이나 자살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생명의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

칼빈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칼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삶을 이끌어 갈 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근원으로 부터 그것의 교훈을 이끌어 낸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언급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참된 조건과 기원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 패턴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²⁵⁾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에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므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함이 공로가 되어 그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²⁶⁾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악과 부정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²⁷⁾ 여기서 칼빈은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적인 삶의 당위성을 속죄와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중생한 자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이어야 함을 강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의식이야 말로 올바른 삶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²⁸⁾ 칼빈에 의하면 일반 철학자들의 도덕론은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데 그치며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²⁹⁾

그래서 칼빈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25) CO. 3.6.1, 686.

26) CO. 3.6.2, 502.

27) CO. 3.6.2, 502: sed quoniam ad eius gloriam magnopere pertinet, non esse illi consortium cum iniquitate et immunditia.

28) CO. 3.6.3, 504: Hæc, inquam, auspiciatissima sunt bene constituendæ vitæ fundamenta ...

29) CO. 3.6.3, 504: ... quibus nequaquam similia deprehendas apud philosophos: qui in condemnatione virtutis nunquam supra hominis naturalem dignitatem conscendunt.

23)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10-11.

24) CO. 3.6.1-3, 10.6, 501-532.

하시고 기뻐하시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권면하고 있다.³⁰⁾ 칼빈은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단계가 되도록 하자. 즉 사람이 그 자신을 떠나서 그의 능력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비우고 전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에 마음을 응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인데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엡 4:22)이라고 불렀고, 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무지했다.³¹⁾

칼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생명의 존재 의미와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축복된 삶의 형태이며 이것은 곧 자기 비움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³²⁾ 그러면

칼빈은 왜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했는가? 칼빈은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추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자기를 부인함)이 한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교만과 허식 탐욕과 욕심 그리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온갖 종류의 악행들의 여지가 없어진다.(참조. 딤후 3:2-5) 반면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추하고 거짓된 죄악에 빠지든지 어떤 유사한 덕목을 나타낸다 해도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부패한 욕심에서 나타난 것이다.³³⁾

칼빈은 자기 부인은 주님의 명령이며 그것 없이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의무는 자기 포기라는 결단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포기를 주장하는 칼빈은 인간의 본성은 원천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⁴⁾

결국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무엇이든지(*quidquid a Domino gratiarum obtinemus*)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러면 이웃과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신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칼빈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 유익

30) CO. 3.7.1, 505.

31) CO. 3.7.1, 505 : Sit hic itaque primus gradus, hominem a se ipso discedere, quo totam ingenii vim applicet ad Domini obsequium. Obsequium dico, non modo quod in verbi obedientia iacet, sed quo mens hominis, proprio carnis sensu vacua, se ad spiritus Dei nutum tota convertit. Hanc transformationem, quam renovationem mentis Paulus appellat(Eph. 4,23)

32) CO. 3.7.2-7. 506-512.

33) CO. 3.7.2, 507: ... quae ubi semel in anno obtinuit, primum neque superbiae, neque fastui, neque ostentationi, deinde neque avaritiae, neque libidini, neque luxuriae, neque mollitiae, neque aliis quae ex amore nostri generantur malis, locum ullum relinquit. Contra ubique non regnat, illic vel spurcissima vitia sine pudore pervagantur: vel, si qua est virtutis species, prava gloriae cupidine vitatur.

34) CO. 3.7.5, 509.

35) CO. 3.7.5, 509.

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태도는 청지기(oeconomus)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물질관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은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이며 그로 인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청지기직의 평가를 계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올바른 유일한 청지기직의 길은 사랑의 법에 의해 시험되는 것이다.³⁶⁾

그러면 칼빈이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칼빈은 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칼빈은 인간을 단순한 생태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ad imaginem Dei) 창조된 생명체로 보기 때문이다.³⁷⁾ 여기에서 칼빈의 위대한 인간존중의 사상을 볼 수 있다. 칼빈은 사람들이 선을 받을 자격이 대부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³⁸⁾

여기서 성경은 가장 최상의 길을 보여준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의 공로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인간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과 영예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36) CO., 3.7.5, 510: quidquid in nos Deus contulit, quo proximum queamus adiuuare, eius nos esse oeconomus, qui ad reddendam dispensationis, rationem astrigimur. Eam porro demum rectam esse dispensationem, quae ad dilectionis exigatur regulam.

37) CO. 3.7.6, 510.

38) CO. 3.7.6, 510.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성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불학무식한 사람이든 혹은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빛나고 있으므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인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특히 칼빈은 마 5:4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마 5:44) 정말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가지 밖에는 없다. 곧 사람의 악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제거시켜 주는 동시에,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⁴⁰⁾

칼빈의 이웃사랑과 존엄사상은 또한 인간의 외형적인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칼빈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인격적인 내적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mortificatio)이며 그것은 사랑의 수혜자의 위치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자기를 가져다 놓고서, 그 사람의 불행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이것이 인간다운 감정이고 참된 동정심이라는 것이다.⁴²⁾

칼빈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선물이므로 우리의 삶 자

39) CO. 3.7.6, 510.

40) 원광연 역,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중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212. CO. 3.7.6, 511.

41) 원광연 역,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중, 213. CO. 3.7.7, 511.

42) 원광연 역,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중, 213. CO. 3.7.7, 511.

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칼빈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에 생명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얻는 새 생명의 성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칼빈이 추구한 생명의 실존적 가치의 의미이다.

4. 생명의 종말론적 이해

칼빈은 생명의 출처와 생명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정리한 후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에 관하여 (De meditatione futurae vitae) 설명하면서 생명의 종말론적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칼빈은 생명의 종말론적 입장을 펴려하면서 현실 세계의 삶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침례하게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⁴³⁾ 칼빈은 사후의 삶을 현실세계의 삶에 비교해 보면 사후의 삶이 최종적인 삶의 소망이며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사후에 있을 영생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쾌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망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세상에 전쟁과 악탈 같은 고통과 악들을 허용하여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⁴⁵⁾ 칼빈은 또한 개인과 가족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43) CO. 3.9.1, 523-528.

44) CO. 3.9.9, 523.: Nemo quidem est nostrum, qui non videri cupiat ad coelestem immortalitatem toto vitae curriculo aspirare et eniti. Pudet enim nos nulla re antecellere brutas pecudes: quarum condotio nihilo nostra inferior futura esset, nisi spes aeternitatis post mortem nobis supersit. Verum si consilia, studia, facta cuiusque examines, nihil aliud illie videvis quam terram.

45) CO. 3.9.1, 523.

록 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고통의 삶을 십자가의 훈련(crucis disciplina)이라고 규정한다.⁴⁶⁾ 칼빈은 인간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동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의 삶도 훈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칼빈은 인생의 최종목적은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현세의 삶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할 것은 투쟁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생각할 때는 눈을 들러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면류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현세의 삶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갖기 전에는 결코 장차 올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⁴⁷⁾

장차 올 영생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생의 삶에 대해 사모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천국이 본향이고 현세의 삶은 유배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의 삶을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본다면 이 땅의 삶은 죄로 억매어 있으므로 주님이 부를 때에는 언제라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46) CO. 3.9.1, 523-524.

47) CO. 3.9.1, 524.

48) CO. 3.9.4, 526; 원광연, 기독교 강요 중, 237: 그러므로 신자는 죽을 인생을 생각하며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 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장차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에, 현재의 삶은 무시해 버려도 무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유배지(流配地)가 아니고 무엇이런 말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은 죽음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육체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런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가장 높은 정상(頂上)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는 비참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런가?

그러면 칼빈은 현세의 삶에 대해 염세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 칼빈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는 결코 이 땅의 삶을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갖고 있는 현세의 삶에 대한 일시 사상은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삶에 비교해서 무가치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이 땅의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이거나 염세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땅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영원한 삶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 뿐 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⁴⁹⁾ 칼빈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현세의 삶에 대한 미움을 발생 시키거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를 정도로 현세의 삶을 경멸하도록 습관화해서는 안 된다. 현세의 삶이 비록 무한한 비참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도 여전히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속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큰 죄악 속에 있는 것이다.⁵⁰⁾

또한 칼빈은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런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곤고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현세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⁵¹⁾

49) CO. 3.9.2, 524-525.

50) CO. 3.9.3, 525.

51) CO. 3.9.4, 526: Deflet quidem sortem suam Paulus (Rom. 7, 24), quod voto suo diutius corporis vinculis alligratus teneatur, et suspirat ardenti redemptionis desiderio: nihilominus, ut Dei imperio patreat, paratum se ad utrumque profitebatur (Phil. 1, 23)

칼빈은 이렇게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세상의 삶에 대한 양극단적인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는 칼빈은 물질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으로 현세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수덕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어떤 수덕주의자들은 빵과 물로만 삶을 유지하는 극단적인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였고, 테베 사람 크라테스(Cratete Thebano)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바다에 던져버린 극단적인 물질 부정의 삶에 살았다고 지적한다.⁵²⁾ 칼빈은 동시에 물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또한 경계한다. 이러한 무절제한 삶의 방식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사람의 양심을 구속할 법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한 삶을 방치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성령이 물질 사용에 대한 합당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³⁾

칼빈이 밝히는 성령이 말하는 현세의 삶 속에서 물질 사용에 관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칼빈은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음식은 생필품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의복과 각종 풀과 나무도 열매나 향기를 발하게 하여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들을 통해 미적 감각을 즐기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들을 즐기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들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들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도 남는다. 주께서 꽃들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과 또한 후각(嗅覺)을 즐겁게 해 주는 향기를 함께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

52) CO. 3.10.1, 529: *Necessitas porro illis est, ab omnibus abstinere quibus carere possis. Ita secundum eos vix ad panem cibarium et aquam addere quidquam liceret. Aliorum maior austeritas, qualis refertur de Cratete Thebano, qui opes suas in mare proiecit, quia nisi periret, perditum se ab illis iti putabat.*

53) CO. 3.10.1, 529.

과 그 향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주님께서는 색깔들을 서로 구분해 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어울리도록 만드셨지 않으셨는가? 또한 금이나 은, 또는 상이나 대리석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셔서 다른 금속이나 돌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간단히 말해서, 주님은 많은 물건들에게 필수적인 용도와 상관없이 없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즐기게 하셨다는 것이다.⁵⁴⁾

그러나 칼빈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즐거움의 소재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인간의 욕심에 의해 남용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의 즐거움에 빠질 때 영적인 은혜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각자의 소명에 따라 만족하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주장한다. 만물을 통해 인간은 창조주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⁵⁵⁾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경건의 의무(*officia pietatis*)라고 하였다.⁵⁶⁾

칼빈은 이 경건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최상의 길은 현재의 삶에 중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삶을 목상하는 것(*coelestis immortalitas meditatione*)이라고 하였다.⁵⁷⁾ 칼빈은 하늘의 영원한 삶에 목표를 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곤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해도 교만하여 타락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위한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고귀한 자세라고 칼빈은 말

하고 있다.⁵⁸⁾

또한 아무리 근심과 수고와 언짢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작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 역시 자기의 직분을 더욱의 목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한 가정의 가장(家長)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치게 만드는 것들과 걱정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긴다.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결코 현세의 삶을 비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의 영생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현세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불멸의 삶을 사모하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종말론적 생명사상이다.

III. 결 론

칼빈의 생명신학에 대해 3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므로 철저하게 기독교 중심의 생명신학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의 생명신학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칼빈은 생명에 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강조하므로 성화론적인 관점에서 생명신학을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과

58) CO. 3.10.6, 532. 원광연, *기독교 강요* 중, 249.

54) CO. 3.10.2, 530. 원광연, *기독교 강요* 중, 244.

55) CO. 3.10.3, 530.

56) CO. 3.10.3, 530.

57) CO. 3.10.4, 530.